

T V

TV 2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오늘 1~2부	6 3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출발! 모닝와이드 1~2부
50 인간극장		7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당신 침 에쁘다>	15 KBC 뉴스지금 40 출발! 모닝와이드 3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8 30 특집다큐 <초고령사회 그 해법을 찾는다 4부>	20 2011 서울 디지털 포럼 기조연설
30 KBS 뉴스	00 희망 릴레이 20 아침드라마 <두근두근 달콤>	9 30 MBC 뉴스 45 기본종은날	20 좋은아침
00 중계방송 국회의원선거(이재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00 여유만만	10	40 SBS 뉴스
00 KBS 뉴스12	00 지구촌 뉴스 20 TV 특집(재)	11 00 주말연속극 <반짝반짝 빛나는>(재)	00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00 KBS 걸작선 (재향왕김탁구)(재)	00 일일연속극 <우리집 여자들>(재)	12 00 MBC 뉴스 25 늘 푸른 인생 스페셜	00 SBS 12 뉴스 30 시간탐험 <순간을 잡아라>
00 KBS 뉴스 10 중계방송 국회의원선거(전도연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40 영상앨범 산	1 15 우리가รัก 우리문화	30 HD다큐시리즈 <南道남도(재)>
00 KBS 뉴스 10 중계방송 국회의원선거(전도연 국토해양부 장관 후보자)	10 명작스캔들(재)	2 15 추억이 빛나는 밤에 스페셜	00 SBS 뉴스 10 건강클리닉
00 KBS 오늘의 경제 10 KBS 네트워크 특선 (도시탐험대-대구)	00 KBS 뉴스타임 05 파워퀀텀(재) 35 애플리케이션(재)	3 10 왕중군의 아름다운 초대 스페셜(재)	10 우리아이(재) 달라졌어(재)
00 KBS 뉴스5 20 KBS특별생방송 (지출선 극복 희망을 담습니다)	00 TV 유치원 30 뽀뽀뽀 뽀뽀(재)	4 00 MBC 뉴스 10 우리아이 미래발견 재능 무한대(재) 40 버리의 시간여행	00 마법의 별 매제네이션2 30 푸르기 탐구생활
00 KBS 뉴스네트웍 30 한국인의 밥상	00 사람의 가족 30 성공예감	5 10 한술밥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전국 TOP 10 가요소(재)
25 일일연속극 <우리집 여자들>	00 KBS 뉴스타임 05 리소스 당신의 여섯시	6 00 6시 뉴스매거진 50 생방송 전국시대	30 생방송! KBC 투데이
00 KBS 뉴스 9	10 생생 정보통	7 45 일일 시트콤 <중앙 내 사랑>	10 시사타치 따따따 20 일일연속극 <당신이 잠든사이>
00 역사스페셜 45 세계는 지금	00 제47회 백상예술대상 시상식 1~2부	8 15 일일 연속극 <남자를 믿었네> 55 MBC 뉴스데스크	00 SBS 8 뉴스 25 KBC 8 뉴스 45 SBS 스포츠 뉴스 5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00 KBS 뉴스인 40 현진로 동행	55 수목드라마 <로맨스 타운>	9 55 수목미니시리즈 <최고의 사랑>	55 드라마 스페셜 (시터헌터)
25 KBS 뉴스 35 남독의 발견	05 해피투게더	10	15 한밤의 TV연예
	15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TV 특강	11 15 왕중군의 아름다운 초대 (시인 김준태)	25 나이트 라인 45 한국의 숲(재)
		12 00 MBC 뉴스 24 10 MBC 100분토론	

■ '가수' 임재범 무얼 냈느냐

카리스마·전율...이것이 가수다

사전 선호도 평가 1위, 경연 1위, 가수별 공연 시청률 1위, 무편집 동영상 재생건수 1위, 가수 임재범이 MBC '우리들의 일밤-나는 가수다'에 출연하며 세운 기록이다. 그러나 그가 '나는 가수다'에 미친 영향은 이런 수치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임재범의 무대를 두고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가 잇따르는 것은 '나는 가수다'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공연을 시청자들에게 선사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임재범은 음정, 발성, 기교 등 가창력의 기술적 요소가 '나는 가수다'의 청중 평가단을 사로잡는 전부라 될 수 없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대중음악평론가 김작가는 25일 "나는 가수다"에서 음정이나 호흡 등 기술적인 요소는 크게 의미 없다. 대신 퍼포먼스와 선곡, 연출, 연출, 편집 등의 요소가 중요하다"며 "임재범은 목소리 안에 모든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다 녹아있다"고 임재범의 성공을 분석했다. 김작가는 "보컬리스트로 봤을 때 임재범은 일반인

이 따라할 수도 없고 따라해서도 안되는 목소리"라며 "어떤 가수에겐 볼 수 없는 개성을 갖고 있다. 일반인이 훈련을 받아서 나오는 가성을 저음으로 뽑아내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기 힘든 두성과 흥성을 쓴다"고 설명했다.

지상렬의 말처럼 임재범의 '무대를 씹어먹는 것 같은' 카리스마는 여타 가수들이 보여주지 못한 실력의 것이다. 이런 그의 무대는 신기, 혹은 귀기괴까지 표현된다.

임재범은 '나는 가수다'를 통해 자신의 노래 실력뿐 아니라 스타성도 입증했다. 지난 13일에는 KBS 2TV '뮤직뱅크'에 11년전 발표한 '너를 위해'로 1위 후보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전까지 그는 스타라기보다는 아인에 가까웠다. 국내 정상급의 보컬이라는 사실은 분명했지만 대중과는 거리가 멀었다.

1986년 시나위 보컬로 데뷔한 그는 1991년 솔로앨범으로 인기를 누렸지만 '얼굴이 알려지는 게 겁남하



가 힘들다며 칩거생활을 반복했다. 간간히 음악활동을 할 뿐 방송과 언론 노출이 거의 없었고 공연 무대에서도 자주 볼 수 없었다. 그가 방송에서 솔직하게 털어놓은 아픈 개인사도 대중에게 매력으로 다가왔다. 방송 중간중간 그가 던지는 개그는 '예능인'으로서의 가능성도 보여줬다.

임재범의 출연에 '나는 가수다'의 성패가 달려있던 김영희 전임 PD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다. 존재감이 컸던 만큼 그의 부재는 '나는 가수다'에 적지 않은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의 자리를 메울 만한 요소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적인 문제다.

그와 탈락자로 선정된 김연우의 후임으로 옥주현과 JK 김동욱이 투입됐지만 인터넷에서는 '역부족이다'는 반응이 대세다. /연합뉴스

목도 몸체도 없는 '윤두서 자화상의 비밀' KBS 역사스페셜

목도, 몸체도 없이 얼굴만 그려진 충격적인 초상화가 있다. 이 초상화는 윤두서의 자화상이다. KBS1 TV 역사스페셜은 26일 밤 10시 '윤두서 자화상의 비밀'을 통해 그림 속에 숨겨진 18세기 조선 지식인의 고뇌를 추적한다.

윤두서의 자화상은 보는 이를 압도하는 강렬한 눈, 장수와의 같은 기세를 느끼게 하는 깨끗하게 뺨친 수염, 터럭 한 올도 놓치지 않는 세밀함으로 한국 회화사에서 불후의 명작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그의 자화상은 목과 몸체가 없

이 얼굴만 그려져 있다. 자신의 신체 일부를 떼어낸 채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유교 윤리에 어긋났던 18세기 조선, 사대부 출신의 윤두서는 왜 금기를 깨면서까지 이런 파격적인 그림을 그릴 것일까? 역사스페셜은 적의 활영과 X선 촬영 등 과학적인 정밀 분석, 그리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와 함께 윤두서의 자화상을 그대로 재현, 그림 속에 담긴 윤두서의 고뇌와 삶의 기록을 추적한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6일(음 4월 24일 辛巳)



36년생 길한 일과 흥한일이 동시에 있다. 48년생 노력한 대가가 나타나려는 시기다. 60년생 남이 시비를 걸어오니 현명하게 처신하라. 72년생 대고는 없으나 조심하여 지내라. 84년생 모든 일이 편안하니 걱정없이 지내라. 행운의 숫자 : 08,30



37년생 부부간 서로서로 이해하라. 49년생 사소한 일로 관청에 가는 수도 보이나 자증이 최선이다. 61년생 신규 투자는 내일로 미루라. 73년생 심상의 안정이 모든 일의 실마리를 쥐고 있다. 85년생 아내와의 불화를 대화로 해결하라. 행운의 숫자 : 09,40



38년생 자신만만 하지마라 적벽이 숨어있다. 50년생 자신의 발길을 다시 한번 점검하라 좋은 길이 보인다. 62년생 자신의 처지를 살펴보면 할 일이 생긴다. 74년생 재사가 불편하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 11,27



39년생 좋은 매너에 조신한 처녀가 따르리라. 51년생 주변이 자신의 길을 어지럽힌다. 63년생 직업에 불편한 문제가 발생하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75년생 직장과 아내사이에 불편사가 발생한다. 행운의 숫자 : 12,45



40년생 협력자는 나타나나 매사에 신중 하라. 52년생 협조자는 있으나 진행은 지연된다. 64년생 화해보다 더 좋은 해결은 없다. 76년생 흥과 복이 다반사니 수양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행운의 숫자 : 15,41



41년생 걱정을 하지마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53년생 규모를 축소하고 내실을 기하라. 65년생 급하면 그러치니 천천히 진행하면 잘못은 없으리라. 77년생 늦을수록 불리하니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라. 행운의 숫자 : 20,45



42년생 과거의 문사속 오늘을 잊어버려라. 54년생 귀를 막고 지내면 마음도 편하다. 66년생 끈기 있게 진행하면 결과가 좋으리라. 78년생 내일을 위해서 힘을 아껴두어라. 행운의 숫자 : 03,29



43년생 마음이 갈갈갈갈하니 정신을 가다듬고 착하게 살아라. 55년생 문단속을 잘하면 마음이 편하다. 67년생 문서는 쥐었으나 실리 없는 문서다. 79년생 서로가 이해하면 서로가 득이 된다. 행운의 숫자 : 07,36



44년생 소심한 행동이 판단을 흐리니 적극적으로 사고하라. 56년생 실리는 적고 할 일은 많다. 68년생 오늘은 즐거우니 무엇이 부러우라. 80년생 외형은 즐기고 실리위주로 진행하라. 행운의 숫자 : 14,27



45년생 외형을 즐기고 실속위주로 추진하라. 57년생 작은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취하라. 69년생 재사가 불편하니 주변에서 도와주는 중인이 스스로 나타난다. 81년생 좋은 소식이 들리니 가족에게 전하라. 행운의 숫자 : 17,25



46년생 좋은 일은 이웃과 함께 나누면 배가 되어 돌아온다. 58년생 체면보다는 실리가 우선이다. 70년생 큰 계획으로 일해야 더욱 값진 수확을 얻으리라. 82년생 타인의 시기가 과롭하니 조심해서 하루를 보내라. 행운의 숫자 : 20,37



47년생 화려한 과거는 꿈으로 생각하고 자신을 생각하라. 59년생 희망의 소리가 주변에서 들린다. 71년생 가까운 곳에서 협조자가 나타나니 적극적으로 추진하라. 83년생 가족은 최고의 협력자다. 행운의 숫자 : 21,38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오하요우 니혼고	니하오 쑹구워	한자 이야기
<p>You're done 다 뒀잖아</p> <p>A : So, click here. Then up at the top. B : Uh-huh. Got it. A : Then open up that window. Yeah, that one. B : Right. A : And that's it. You're done. B : I see what you mean. Tat was pretty easy after all.</p> <p>A : 그래, 여기 눌러봐. 그리고 위로 올라가봐. B : 어! 알았어. A : 그러면 저 윈도우창을 열어봐. 그래, 그거야. B : 되구나. A : 그래 그거야. 다 뒀잖아. B : 감, 잡았어. 어쩐지 정말 쉬워졌네.</p> <p>* That's it. = (구어) 아 바로 그것(그 점) 이다, 맞아. * after all = 뭐라고(뭐니 뭐니)해도, 어쨌든</p>	<p>猿も氣から落ちる。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p> <p>A : 彼は運のいい。何でも彼がやると成功するよ。 B : 能力もあるし、人当たりもいいからね。 A : いつかは猿も氣から落ちる時があるよ。 B : 彼に限ってそんなことないと思うよ。</p> <p>A : 그는 운이 좋아. 뭐든지 그가 하면 성공해. B : 능력도 있고, 인간관계도 좋으니깐 그렇지. A : 언젠가는 실패할 때가 있겠지. B : 그만은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p> <p>[단어정리] 運がいい 운이 좋다 人当たり 인간관계 に限って ~에 한해서</p>	<p>非驴非马 fei lú fei mǎ 죽도 밥도 아니다</p> <p>'나귀(驴/驴)도 아니고 말(马)도 아니다'라는 말로 우리 말의 '죽도 밥도 아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밥 같은 죽, 죽 같은 밥. 무엇을 먹든 맘에 안든 상태입니다. 나귀도 아니고 말도 아닌 非驴非马는 중국의 '汉书·西域传'에 전해지는 한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중국 漢代 龟兹国 (qiū cí 지금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 위치했던 고대 서역의 나라 이름)의 한 왕이 중국 漢(漢) 문화를 너무나 좋아하여, 漢 나라를 수차례 방문하며 한나라의 제도문화를 자기 나라에 옮기려고 하였지요. 그런데 말도 문화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의 환경에서 나온 것이기에 억지로 갖다 붙이려던 문체가 생겼지요. 그래서 말도 아니고 나귀도 아닌 노새의 형국으로 바뀌고 말았다는 기록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유래하여 이도 저도 아닌 상태를 가리킬 때, '非驴非马'가 쓰이게 되었습니다. '不三不四'-'셋도 아니고 넷도 아니다'도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p>	<p>覆水不返盆(복수불반분) 다시 복, 물 수, 아닐 불, 돌이킬 분, 등이 분</p> <p>복수불반분(覆水不返盆)은 한번 쏟은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다는 뜻으로, 한번 헤어진 부부가 다시 결합할 수 없음을 비유하거나 또는 한번 끝난 일은 되풀이 못함을 이른다.</p> <p>주(周)나라의 문왕(文王)이 사냥을 갔다가 한 노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어 보니 학식이 보통이 아니었다. 이 노인이야말로 큰 인물이라고 여겨 스승이 되어 달라고 청했고, 그는 청을 받아들여 스승이 되었다. 후에 그는 제(齊)나라의 제후에 봉해졌다. 사실 여상은 입신출세하기 전에 매우 가난하여 그의 부인 마씨는 생활고를 참다못해 보따리를 싸고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다. 이후 여상이 제나라의 제후에 봉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는 너무나도 가난하여 떠났지만, 다시 돌아왔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여상은 "한번 었지른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고 한번 떠난 아내는 돌아올 수 없는 것이요."라고 말하였다.</p> <p>[출전] 『사기(史記)』 <제대공세가>, 『승유기(拾遺記)』 * 급수 : 한자능력검정 종3급, 8급, 7급, 3급, 1급</p>
<p><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p>	<p><이스카 일본어 전문학원 제공> http://www.kjasuka.co.kr ☎ 232-1503</p>	<p><리틀치이나 중국어 전문학원> www.littlechina.co.kr ☎ 233-9582</p>	<p><대능출판> www.daeneungedu.com</p>